



프로듀스 101 시리즈 : 기회와 함정

I. “국민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불어온 신선한 바람

2016년 1월, 어디에나 있었으나 어디에도 없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힘차게 그 출발을 알린다. 이름하여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등 술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음악 전문 방송 Mnet이 야심차게 내놓은 ‘아이돌 판 슈퍼스타 K’이다. 규칙은 단순했다. ‘국민 프로듀서’라 일컬어지는 시청자들의 투표만으로 101명의 아이돌 연습생들 중 최상위 11명의 연습생을 그룹으로 꾸려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것. 이와 같이 일견 단순해보이는 구성의 프로그램이 향후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1-1 살아남는 자만이 프로가 된다 :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기

사실 프로듀스 101과 같이 출연자들이 경쟁을 통해 평가되고, 탈락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다. 연예 분야에서 활약할 차세대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목적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2009년 Mnet의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Exhibit 1]

2016년에 이르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은 다소 사그라드는 듯 보였다. 유사한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은 진력이 났고, 이를 반영하는 시청률은 형편없었으며 폐지도 빈번했다. SBS의 K팝 스타는 마지막 시즌을 방영하며 막을 내렸고, 원조 격인 슈퍼스타 K는 저조한 성과를 버티지 못한 채 2017년 방영 8년만에 개점휴업 간판을 내걸었다. 쇼미더머니 시리즈만이 힙합열풍에 힘입어 오디션프로의 명맥을 유지한 정도였다. 예능의 판도가 ‘여행’, ‘가족’, ‘생활’ 등의 키워드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이미 ‘우릴 대로 우린 사골’ 같은 아이템으로 여겨졌다.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 듯 엠넷은 새로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런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 프로듀스 101의 출사표였다.

1-2 ‘오디션 프로그램 장인’ 안준영 PD, 그는 누구인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닳을 올린 프로듀스 101의 키를 잡은 것은 안준영 CJENM PD였다. 그는 프로듀스 시리즈 이전 수많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범람하던 시절부터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다.

¹ 본 케이스는 2018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가을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의 지도하에 권해원, 백인우, 양동식, 이성진, 채희선 5명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다.

일각에서는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그를 빗대어 '오디션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안준영 PD는 2009년 슈퍼스타 K에 조연출로 참여한 뒤, 2010년 슈퍼스타 K2에서 처음 메인연출을 맡았다. 이후 슈퍼스타 K3, 슈퍼스타 K4, 댄싱9 등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출해왔으며 그가 제작하였던 오디션프로그램 출신의 연예인들은 음악 연기 예능 등을 누비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Exhibit 2]

이처럼 커다란 성공을 잇따라 거두며 서바이벌 오디션 계의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던 안준영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종영 후 '서바이벌 오디션은 지양하고 리얼리티를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드러냈으나, 결국 또다시 프로듀스 48의 제작은 그의 손에 맡겨졌다.

1-3 Mnet이 가진 역량이란? : 젊은 감각과 트렌디함

프로듀스 시리즈를 방영하는 엠넷은 음악 전문 방송사로, 슈퍼스타 K, 쇼 미 더 머니를 비롯한 여러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룬바 '대박' 콘텐츠로 성장시키는 저력을 선보여왔다. 엠넷은 케이블 방송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더 많은 시청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제약을 덜 받는다. 게다가 채널 자체의 음악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음악, 특히 대중 음악에 중점을 두고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해 온 엠넷은 대중 음악의 주 소비자층에 맞춘 특유의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각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더 자유롭고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엠넷의 역량은 2004년 이래로 방영되어온 음악 프로그램 M countdown, Mnet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MAMA(Melon Asian Music Award)과 같은 콘텐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음악에 있어 젊은 세대의 선호를 한 발 빠르게 포착하는 Mnet은 그간 아이돌 그룹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젊은 층을 겨냥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대중음악을 바탕으로 한 젊고 세련된 감각. 이를 기반으로 쌓여온 Mnet의 내공은 이후 숱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 사이의 경쟁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II. 국민아이돌 프로젝트, 프로듀스 101 시즌 1의 힘찬 도약

2016년 상반기 대한민국 모든 변화가에는 한 곡의 노래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픽미픽미픽미업~'이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단순한 가사를 바탕으로 한 노래 'Pick me'는 2016년 최고의 화제였던 방송 프로듀스 101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단체 곡이었다. 이 노래는 공개와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몰고와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며 프로듀스 101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프로듀스 101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엠넷의 대규모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서 40개 이상의 기획사와 개인 연습생을 포함하여 101명의 연습생이 참가하여 평가 무대와 국민투표 순위 발표식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 11명을 가렸고 이들은 IOI(아이오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하였다.

2-1 국민이 만드는 걸그룹?: 프로그램을 둘러싼 우려들

방송 초반부터 프로듀스 101은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AKB48²의 시스템을 따라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AKB48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다 인원 여성 아이돌그룹으로서 AKB48에 소속된 멤버들은 자신이 가수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대중에게 보여주며 인지도를 상승시켜 나간다. 멤버들은 지속적인 인기투표를 통해 무대와 방송 노출의 기회는 물론 1위에 선정될 경우 자신이 센터인 앨범 및 곡을 획득하게 된다. 방영 전부터 프로듀스 101은 한국판 AKB48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으며, 이는 프로듀스 101이 기존의 한국 아이돌그룹에서는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멤버간 인기를 적나라하게 투표를 통해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 인기 순위에 따라 새로운 걸그룹을 제작한다는 점³, 최고 득표자에게는 하이라이트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센터' 포지션이 주어진다는 점 등이 일본의 AKB48 시스템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아이돌 제작 방식은 소속사를 중심으로 연습생들이 소위 '한술밥'을 먹으며 데뷔까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히 팬덤도 그룹을 단위로 형성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프로듀스 101 시스템은 '당신의 소녀를 위해 투표하세요'라는 슬로건처럼 자신이 가장 응원하는 연습생을 지지하고 그러한 개인 팬덤을 가장 많이 보유한 11명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그룹 중심의 아이돌 팬덤 문화와 융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프로그램 방영 전부터 프로그램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

또한 100여명의 어린 여자 아이들이 단체로 교복을 입고 나와 자신을 뽑아달라고 어필한다는 점에서 제기된 성상품화 문제와 가뜰이나 포화상태인 아이돌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 또한 엠넷이라는 거대 방송사가 아이돌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이 기존의 아이돌 시장 질서를 뒤흔든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선발된 서로 소속사가 다른 연습생 11명을 한 그룹으로 데뷔한다는 점과 활동 기한에 제한이 있는 시한부 걸그룹이라는 점들 또한 프로듀스 101이 넘어야 할 거대한 요소들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드러나지 않았던 연습생들의 치열한 땀과 노력이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면서 기존의 대중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졌던 우려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인 기존의 논란은 잦아들면서 프로그램 자체의 인기는 방영을 해갈수록 높아갔으며, 프로듀스101은 2016년 단연 최고의 화제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² 일본의 아이돌 프로듀서 아키토모 야스시가 프로듀싱하는 일본의 여성아이돌그룹으로서, '에이케이비 포티에잇'으로 읽는다.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을 컨셉으로 돈키호테의 아키하바라 점 8 층에 위치한 전용극장에서 상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³ 프로듀스 101의 경우 순위권의 멤버들로 걸그룹이 구성되지만, AKB48의 경우 투표 순위에 따라 싱글곡 등을 발매하게 되어 tv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될 선발멤버가 결정되는 점이 다르다.

2-2 내손으로 직접 뽑는 아이돌 : 국민투표제와 베네피트

프로듀스 101 1회에서 제목처럼 101명의걸그룹 연습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3대 아이돌 기획사⁴ 중에서는 JYP만 연습생을 참여시켰으며, 총 40개가 넘는 기획사와 소속사가 정해지지 않은 5명의 개인 연습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기획이었다. 해당 기획사들은 규모나 지금까지의 실적면에서 수준이 다양했는데, 프로듀스 101은 이를 통해 기획사의 차등적인 지원없이 오로지 국민에 의해서만 평가받는 경쟁의 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프로듀스 101의 국민투표제는 1명이 1일 1투표를 매번 할 수 있는 무한투표제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투표는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평가무대를 직접 관람한 사람들의 현장투표로 주어지는 베네피트제도가 국민투표제라는 큰 틀의 예외로서 적용되었다. 또한 마지막회 생방송 문자투표는 문자 1건 당 온라인 투표 7표의 효력이 있도록 방송 시간 동안만 집계되었다.

국민투표제라는 규칙은 방송 기간 전반동안 유지된 가장 큰 틀이었다. 방송은 2주 단위로 평가무대와 순위발표식이 번갈아 구성되는 식이었다.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1일 1번의 투표를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에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평가무대마다 연습생들이 보여준 무대와 여러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에 따라 순위가 변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반에 상위권에 안착한 몇몇 참가자들이 지속해서 안정적인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프로듀스 101은 극적인 요소를 저해하지 않고, 방송의 재미를 위해 평가 무대 현장 관람객 투표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베네피트를 10만표 단위로 크게 상향 조정하여 무대에서 강점을 보이는 연습생들에게 순위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3 트레이너와 등급제의 도입 : 연습 중에 싹트는 서사

프로듀스 101 연습생들의 티셔츠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A,B,C,D,F라는 알파벳이 붙여져 있다. 이는 각 연습생들이 방송 초기에 보여준 소속사 평가와 픽미 평가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트레이너들이 부여한 프로듀스 101의 자체 등급을 의미하여, 대중들에게 인기순위와는 다른 또 하나의 평가척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평가 무대가 매번 다른 프로젝트 그룹을 요구하게 되면서 클래스별 레슨이라는 포맷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지만 방송 초기 등급제 포맷은 실력이 비교적 부족한 연습생들의 빠른 성장과 그 연습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서사를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최종 11인에 들어 I.O.I로 활동한 김소혜 참가자를 들 수 있다. 김소혜는 원래 배우 지망 연습생으로서 춤과 노래를 배워 본 적이 없어 등급평가에서 F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 단체 미션 등에서 밤을 새는 등 모습 등, 다른 연습생들과의 실력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게 되고, 성장캐릭터라는 서사를 부여 받게 되면서 기존의 부정적인 평가를 타파하고 인기몰이에 성공하게 된다. 그런 김소혜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소위 '센세룰'⁵을 맡게 된 김세정 또한 다정하고 실력 있는 모습이 부각되며 인기몰이에 성공 최종 2위라는

⁴ 통상적으로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기 아이돌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SM, YG, JYP를 묶어서 3대 아이돌 기획사라고 부른다.

⁵ 선생님 룰의 일본식 표현으로서 김세정이 김소혜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통해 김세정에게 붙은 별명. 이후 실력이 부족한 연습생을 가르쳐주는 참가자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형성되었다.

높은 순위로 데뷔에 성공하였다. [Exhibit 3]

2-4 참가자들의 땀과 노력 : 평가 무대와 치열한 경쟁

평가 무대는 연습생들이 매주 부여 받은 단체미션으로서 곡을 기준으로 모인 연습생들은 팀 별 연습과 레슨을 거쳐 준비한 무대 현장 참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이들의 평가에 따라 베네핏이 부여 받는 콘텐츠이다. 매 번 평가무대에서의 팀의 호흡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되었다. 무엇보다 편집에서 기존 안준영 피디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반응을 이끌어 냈던 라이벌 구도, 경쟁관계 등을 생산하기에도 적절한 시스템이었다. 하이라이트 파트를 받는 센터 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 참여자들간의 실력차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 그 속에서 보여지는 참가자 간의 눈물과 우정 또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의 등장 등이 편집과정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고, 대중들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대 만큼이나 그 무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같은 서사가 반복되어 지루함을 만들어 낸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걸그룹 무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센터 역할을 누가 맡느냐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모든 팀에서 문제시되며 중간점검 시 문제가 있었던 대부분의 팀들의 솔루션으로 센터 교체가 제시된 점은 회를 거듭할수록 뻔한 진행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센터를 둘러싼 각 팀 순위 상위권 멤버들의 갈등 또한 주요 서사로 반복되어 매 회마다의 차별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2-5 참가자들의 다양한 매력 공개 : 서브콘텐츠의 활약

프로듀스 101은 철저하게 평가무대를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되었지만, 참여자들을 응원하는 팬들을 모으는데는 평가무대만큼이나 자체적은 다양한 서브콘텐츠들의 역할이 컸다. 간혹 평가무대에서 많이 비춰지지 않았던 참가자라고 할지라도 방송 중간 중간에 보여졌던 다채로운 서브 콘텐츠 등으로 매력을 어필하고 혹은 반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엮어진 콜라’ 몰카, ‘파손된 카메라’ 몰카, ‘외모 top’ 투표, ‘춤 top’ 투표, ‘예방접종’, ‘프로필 측정’등 서브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이러한 서브 콘텐츠들은 기존 Mnet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받아왔던 비판과 마찬가지로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받았으나, 비교적 소재가 가볍고 특정 연습생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아 괜찮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Exhibit 4]

또한 프로듀스 101은 네이버 TV를 통해 다양한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다양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브 콘텐츠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였다. 정규 방송시간에 따로 편성되지 않았던 101명 참가자 모두의 자기소개 영상과 프로그램의 테마곡인 ‘Pick me’의 공연 영상은 물론, 매 평가무대마다 연습생 한 명 한명의 직캠 영상이 ‘일대일아이컨택’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캐스트 tv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이 관심이 가는 연습생을 정규 방송 외적인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인기를 끌어올려주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2-6 논란을 넘어선 인기, 프로듀스 101의 성공과 I.O.I

프로듀스 101은 케이블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높은 시청률을 선보이며 그 인기를 증명했다.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었다는 점과 아이돌 오디션이라는 특정 연령대에 집중하는 듯한 프로그램 특성이 시청률을 높이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시청률 3.01%를 시작으로 최종회에는 4.4%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남긴 것이다. 또한 그 시청률만큼이나 두드러졌던 화제성 역시 프로듀스 101의 인기를 입증한다. 프로그램 진행 중 미션곡으로 주어졌던 노래들의 음원 순위와 화제성 순위는 프로그램 진행 내내 상위권에 머물렀다. [Exhibit 통합1]

이러한 프로듀스 101의 인기는 그로부터 데뷔한 그룹인 I.O.I로 이어졌다. 그들의 첫번째 미니앨범인 <Chrysalis>는 발매 즉시 앨범 차트 4위에 올랐으며, 2016년 10월에 발매된 미니앨범 <miss me?>는 가온 앨범차트 집계 걸그룹 기준 2위의 성적을 내며 식지 않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특히 <miss me?> 2016년에 데뷔한 모든 아이돌 중 단일앨범 판매량 최다 기록을 차지했다. 결국 2016년 I.O.I는 4개의 앨범을 발매하며 총 241,252장의 판매고를 달성했는데, 이는 2016년 아이돌 그룹을 통틀어 최다 앨범판매량 기록이 되었다. [Exhibit 통합2]

III 이번에는 남자아이돌?, 프로듀스101 시즌2의 고공행진

전 시즌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제작은 너무나도 당연히 정해진 행보처럼 보였다.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각종 연예뉴스들은 시즌2의 새로운 국민프로듀서 대표로 보아가 선정되었다는 뉴스에서부터, 이석훈, 치타, 가희 등 각 부문 트레이너들의 합류 소식까지 연일 앞다투어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이야기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연예 활동을 한 경력이 있거나 방송출연 경험이 있는 유명 참가자들이 시즌2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방송에 대한 화제가 일었고, 이는 기존의 국내 남성 아이돌그룹의 정세의 강력한 지형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국내 남자 그룹의 형세를 살펴보면 2012년 데뷔 이래로 여전히 탑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던 엑소(EXO)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고 해외에서 막강한 지지세력을 얻기 시작한 방탄소년단(BTS)의 양강 체제에 2015년 데뷔 이후 청량한 컨셉과 '자체제작'을 내세우며 라이징 반열에 오른 세븐틴이 소위 'EBS⁶'라고 불리우며 각기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를 JYP사단의 갓세븐과 YG의 워너 및 아이콘, SM의 NCT 등의 그룹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4월 3일 101명의 참여자들과 제작진 및 트레이너들이 함께 모여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제작발표회가 진행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프로듀스 101 시즌2(남자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⁶ 엑소(2012 데뷔), 방탄소년단(2013 데뷔), 세븐틴(2015 데뷔)의 첫 이니셜인 E, B, S 를 따서 부르는 말로서, 당시 남자아이돌 그룹들 중 가장 큰 팬덤을 구가한 세 남자아이돌을 묶어서 지칭하기 위한 신조어를 의미한다. 워너원의 데뷔 이후 남자아이돌의 판도가 바뀌면서, 엑소, 방탄소년단, 워너원의 세 인기그룹을 데뷔순서대로 '엑방원'이라고 칭한다.

3-1 남성아이돌그룹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남성 아이돌은 그 셀링포인트와 제작과정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여성 아이돌그룹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한 가요 관계자는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과 보이 그룹의 차이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 걸그룹은 단기에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일단 보이그룹에 비해 멤버들의 개별, 특성화가 빨리 이뤄진다. 따라서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상대적으로 쉽고, 여기에서 잘만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광고나 행사를 본격적으로 뛰게 된다. 특히 행사 수입이 짝짤하다. (중략) 반면 보이그룹은 걸그룹에 비해 멤버별 특성화가 쉽지 않다. 따라서 데뷔 이후 음반이 성공했다해도, 소위 돈을 벌어오려면 1년 여는 기다려야한다. 그러나 강점은 일정 경지에 오르면 롱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듀스 101 의 첫 시즌은 남성 아이돌이 아닌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시작한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의 프로젝트 그룹 활동을 마치고 나면 각자의 그룹으로 돌아가거나 솔로 아티스트로서 각자 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는 프로듀스 101시스템의 특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프로듀스의 새로운 시즌이 여성 아이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팬덤의 영향력이 센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한다는 소식이 들려 왔을 때 가장 많은 우려를 보인 점은 남성 아이돌만의 특수성이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특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3-2 기획사들의 소극적인 참여

시즌 1에 비해 유명 소속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도 프로그램의 실패를 점쳤던 사람들의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시즌1에는 3대 기획사였던 JYP를 비롯하여, 울림, 플레디스, F&C 등 어느정도 이름이 있는 소속사의 연습생들이 대거 출연을 하였으나 시즌2의 경우 3대 소속사의 연습생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소속사들의 연습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Exhibit 5] 활동기간이 시즌 1의 경우 6개월 가량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시즌 2에서는 해외투어를 포함한 활동기간만 약 1년 6개월, 프로그램 촬영을 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약 2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소속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자산인 연습생들의 출연을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안준영 PD는 프로그램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작발표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촬영 준비단계에서 남자 아이돌 연습생들을 모으면서 정말 힘들었다.

여자 연습생들은 많은데 남자 연습생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더라.”

“아이돌 연습생 수가 적다보니 소속사들 돌면서 물어보니 다 적당한 사람들은 데뷔 예정돼있거나 그래서 모으기가 힘들었다. 나중에 남자 버전을 다시 만든다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다.”

라고 당시의 회고를 밝혔다. 또한 시즌 1의 겸업가능 조항이 지난 I.O.I 활동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

으켰던 것⁷을 고려해 시즌2부터 추가되었던 겸업금지 조항은 각 소속사들로 하여금 프로듀스 101에 자신들의 연습생을 내보내는 것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였다.

3-4 경력이 있는 참가자들의 재조명

시즌 1에 비해서 시즌2에서는 기존에 데뷔를 했었으나 빛을 보지 못했던 참가자들에 대한 재조명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어려웠던 탓에 시즌2는 기존의 연예계 활동경력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거 모집하였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참가자의 약 30%에 육박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케이스인 뉴이스트(Nu'est)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FACE라는 곡으로 데뷔한 플레디스 소속의 남성5인조 그룹으로 성급한 해외활동 등으로 인해 대중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졌다. 연습생 공개 당시 5명의 멤버 중 다리 부상 중이던 멤버 아론을 제외한 4명이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6년차 아이돌과 연습생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대해 안준영 PD는 제작발표회 당시

“1년에 50~70여 개 팀이 데뷔를 하고 있다. 그 중에 각인되는 아이돌 그룹은 1년에 2~3개 팀밖에 안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획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담으려 하고 있다”

고 말하며, 데뷔했던 참가자들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일축시켰다.

데뷔를 했었으나 실패를 겪은 청춘의 슬픔과 고민은 방송을 타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뉴이스트 멤버 중 리더 김종현의 경우, 연습 중 한 멤버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를 참으며 본인의 간절함을 어필하던 모습이 많은 화제가 되어 국내 실시간 트위터 1위를 기록하였고, 방송이 나간 후의 2차 순위 발표식에서 1위에 올랐다. 뉴이스트 뿐만 아니라 핫샷, 탐독을 비롯한 기존의 아이돌그룹 출신과 슈퍼스타K에서 ‘책통령’으로 화제를 몰았던 장문복 등의 출연은 프로그램 초반 화제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였던 듯, KBS에서는 프로듀스 101 시즌 2 방영 직후, 이미 데뷔한 아이돌그룹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부활 프로젝트인 ‘더 유닛’을 제작하였으나, 시청률과 화제성 모든 측면에서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3-5 끊이지 않는 논란과 비례하는 프로그램의 인기

프로듀스 101 시즌 2는 시즌 1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논란을 불렀으며, 이와 비례하여 프로그램의 인기 또한 치솟아갔다. 서바이벌이라는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참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다 보니 그들의 언행은 끊임없이 도마위에 올라 대중의 냉혹한 심판을 받았다. 대결 팀 선정 과정에서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성 논란에 올랐던 워너원 멤버 이대휘는 논란이 된 방송 이후 방송된 회차에서 떨어진 자신의 순위를 덤덤히 받아들이며 “제가 많이 부족하고 방송에서 ‘밑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력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더 성숙해지도록 하겠다” 라고 담담히 소감을

⁷ 아이오아이(I.O.I) 활동 당시 다른 그룹에 소속이 되어있었던 멤버들의 겸업문제로 인해 김세정, 강미나, 정채연, 유연정을 제외한 7 명의 유닛멤버가 싱글 앨범 ‘Whatta Man’으로 활동하였고 팬덤 내부에서 활동 소홀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전했다.

이대휘 뿐만 아니라 강동호, 주학년, 강다니엘, 임영민, 황민현, 윤지성 등 참가자들 중의 많은 수가 방송 중에 보여주었던 그들의 언행과 심지어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과거의 경험담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hibit 6] 이러한 논란의 정점을 찍은 것은 가짜뉴스 사건으로, 일부 참가자들의 호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참가자들에 대한 비방을 뉴스 기자가 쓴 것처럼 제작되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되기도 하였다. 프로듀스 101 시즌2는 금요일 11시 심야 타임의 방송이었으나,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인해 일주일 내내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일각에서는 “방송이 나가는 시간 동안이 가장 평화롭다.”⁸라는 우스개 소리가 돌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해서 일어났다. 특히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은 프로그램 첫 화부터 계속되었던 공정성 논란이었다. 프로그램 측에서 데뷔를 할 연습생을 내정 해두고 편파적인 방송 분량과 편집으로 특정 연습생들을 밀어준다는 주장은 프로그램 방영 마지막까지 따라 다녔다. 정해진 방송시간에 모든 참가자들을 골고루 비춰준다는 것은 어렵지만, 멤버의 선정을 시청자에게 맡겼음에도 시청자들에게 참가자들의 매력을 공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빚발쳤다. 방송 시간 내내 한 컷도 나오지 못한 멤버들과 해당 회차의 주요 서사를 담당하였던 멤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커뮤니티를 통해 증폭되어져 갔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참가자들을 방송이 아닌 곳에서도 알리기 위한 팬들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멤버들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을 편집해 올리는 것에서부터, 지하철역에 사진 광고를 걸거나, 버스를 래핑하여 광고를 하였고, 해당 참가자의 공개된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창을 띄워 밤새 스트리밍을 하는 등 대규모로 조직화된 움직임을 보였다.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당일에는 참가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슬로건과 포토카드, 부채 등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는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방송 마지막 회를 앞두고는 투표와 커피나 간식들을 교환해주는 행사 등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경쟁적으로 일어났다. [Exhibit 7]

3-6 새로운 요소들로 긴장감 증폭

프로듀스 시즌 2에서는 전 시즌에서 보여주었던 대략적인 틀은 그대로 가져갔지만 몇몇 요소들에 있어서 시즌 1과는 다른 룰을 적용하였다. 우선 1인당 무한 투표였던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에서는 1인당 투표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방송 한 회 한 회에 따라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투표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 또한 시즌1과는 달리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해 투표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대폭적으로 높였다. 이의 결과로 실제 시즌 2에서의 참여자들의 순위 변동은 시즌 1에 비해 매우 극심했다. [Exhibit 통합3]

뿐만 아니라 1인당 한번에 투표할 수 있는 인원수를 계속 변화해가며, 마지막까지 데뷔를 거머쥔 참

⁸ 실제 방송이 방영되기 전, 후에는 참가자와 방송 자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방송이 되고 있는 동안에는 방송을 보느라 사람들의 논란이 잠시 동안 잦아들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을 의미한다.

가자를 예상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생존자 수가 많은 초창기에는 1인당 11까지 투표하는 것을 유지하다가 3차 순위발표식에서는 지난 시즌과 다르게 1인당 2명을 투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룰을 적용하였다. 데뷔가 결정되는 마지막 회의 문자투표에서는 1인당 1명에게 투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방송 전까지 시청자들은 과연 누가 진정한 1픽의 강자로서 데뷔의 행운을 쟁취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시즌 2의 변화된 룰들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3차 순위 발표식 이후 살아남는 참여자의 수가 시즌 1때의 22명에서 2명으로 갑자기 조정되었는데, 이는 미리 공개되지 않고 촬영 당일에 갑작스레 발표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 20위의 한자리를 두고 20위와 21위의 참여자들을 단상에 세워 두고 한 명을 탈락시키는 자극적인 연출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회의에서는 문자 투표가 미처 마감되지 않았음에도, 탈락 위기에 있는 참여자들을 생방송 중간에 공개를 하였던 것이 인위적으로 특정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방송 중간에 득표수가 공개되었던 탈락 위기의 4명의 참여자들 중 3명이나 워너원으로 데뷔를 함으로서 방송을 통한 불공정한 투표 독려로 순위가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마지막 회의 문자투표는 기존의 온라인투표와 달리 1표가 7표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방송의 편집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안준영 PD는 방송의 재미를 위한 연출이었으며, 실제로 중간 집계가 가져온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지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편집이 미치는 영향이 과도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3-7 방송 외적인 콘텐츠 제작에 집중

프로듀스 101 시즌2를 단순히 금요일 밤 11시에 엠넷을 통해 방송되었던 방송 그 자체만으로 분석한다면 빙산의 일각 만을 보고 전체를 논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프로듀스 101 시즌 2는 방송 매회 주요 서사를 담당하는 참여자 한 두 명에 포커스가 맞춰진 편집을 보여주는 한편, 서바이벌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참가자들의 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눈을 깜빡이기 전까지 참여자들이 카메라를 뻗히 쳐다보는 아이컨택 영상, 제한 시간내에 머랭치기를 성공하면 자기 PR의 시간을 주는 영상 등은 모두 참여자들의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는 영상들로서 참여자 모두가 같은 기회를 받아, 설령 방송에서 분량이 없었던 참가자라 할지라도 해당 영상등이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어 참여자의 인기가 올라가는 경로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등을 통해 미공개 사진 등을 공개하고 방송으로는 미처 공개하지 못한 비하인드 연습영상들이 네이버 캐스트tv등을 통해 공개되며, 방송이 되지 않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주말 이틀 동안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계속 끌어당겼다. [Exhibit 8]

특히 주목해봐야 할 것은 참가자들의 무대 영상을 담은 직캠영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화제를 얻은 워너원 강다니엘의 'sorry sorry' 개인직캠 조회수는 천만 회에 달하며⁹, 직캠이 공개된 네이버캐스트 tv에서 오랜시간 동안 1위를 유지하였다. 참가자들의 직캠은 단순히 응원하는 팬들을 즐겁게 해

⁹ 네이버캐스트 tv, 11 월 10 일 기준, 11,643,851 회

주는 영상이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되었고 직캠에 표시되는 하트수와 조회수는 각기 팬덤지표와 대중성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졌다. 따라서 각 팬덤들은 여러 아이디어를 만들어 각 참여자의 하트수를 높이고, 직캠 영상을 스트리밍 돌리는 등 자신이 응원하는 참여자의 직캠이 인기동영상 높은 순위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직캠이 인기 동영상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자 이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프로듀스101 시즌2를 보게되는 선순환이 일어났으며, 직캠과 영상 스트리밍은 프로듀스 시즌2 이전에 비해 아이돌그룹 팬덤 문화에 있어 이전과 다른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3-8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성공과 워너원의 예견된 성공

프로듀스 101이라는 시스템은 남성 아이돌 그룹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깨고 프로듀스 101 시즌 2는 시즌 1을 압도하는 시청률과 화제성 지표를 보여주었다. 프로듀스 시즌2의 테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야나'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러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위로 최종 데뷔한 워너원 박지훈이 방송 중 보여준 애교 '내 마음속의 저장'은 특유의 상큼한 제스처와 함께 각종 매체들에서 조사한 2017년 유행어 목록에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또한 방송 중에 미션곡으로서 공개되었던 음원 중 '국민의 아들-Never'의 경우 멜론차트에서 실시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여주었다. [Exhibit 통합1]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발판으로 데뷔한 워너원은 신인그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데뷔와 동시에 이니스프리(화장품), 아이비클럽(교복), 롯데리아(햄버거)등의 기존 최고의 인기 아이돌이 도맡던 광고를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g마켓과 신한은행 등 보다 폭넓은 대중성이 필요한 광고까지 섭렵했다. 2017년 8월 7일 발매된 데뷔앨범 '1*1=1 (TO BE ONE)'은 발매 첫 주에만 41만장이 넘는 판매실적을 보이며 남자아이돌 데뷔앨범 초동의 기록¹⁰을 갈아치웠으며, 타이틀곡 '에너지틱'은 멜론 진입자수 9.9만명, 연간 1억 회 스트리밍이라는 놀라운 성과 보여주었다. 지난 시즌 타 방송국 서바이벌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공중파 출연에 제약을 받은 I.O.I 경우처럼 워너원에게도 공중파 출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피투게더>, <런닝맨>, <SNL>등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에 등극하였다. 프로그램 직후, Mnet은 워너원 멤버들만이 출연하는 자체 예능 '워너원고'등을 제작하였으며, 워너원 멤버들은 예능과 음악방송을 넘나들며 남자아이돌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대중성을 가지게 되었다. [Exhibit 통합2]

IV. 한일합작의 새로운 시도,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시즌1과 시즌2의 잇따른 성공으로 시리즈를 잇는 공식 후속 작품 프로듀스48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지난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한일합작'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즌1,2에 이어 프로그램을 기획한 안준영 PD는 한일

¹⁰ 2018.11.10 일 남자아이돌 초동 8 위, 1~7 위 까지는 방탄소년단과 엑소의 앨범들, 그리고 워너원의 두번째 앨범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아시아 혹은 글로벌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29일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개최된 <2017 MAMA in Japan>에서 AKB48 그룹의 프로듀서인 아키토 야스시가 프로듀스 101 시즌3 프로그램의 기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이 직접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국내의 프로듀스 101 시스템과 일본 최고의 프로듀서 아키토 야스시¹¹⁾의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을 컨셉으로 전용 극장에서 상시 라이브 공연을 하는 일본 AKB48 시스템을 가미한 한일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이다. 이후 야후 재팬 등 일본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국내외 각종 매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대중문화개방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과의 콜라보가 시기적으로 상징성을 가진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시리즈의 기획 의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첫 기획 발표는 일단 좋은 행보를 걷기 시작한 것이다. 엠넷은 X월부터 언론을 통해 순차적으로 프로듀스48의 청사진을 공개하였고 2018년 5월 10일 음악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최초로 연습생들의 정체를 대중 앞에 공개했다. 공개 직후 SNS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하루 내내 프로듀스48 연습생들 모습이 인기 순위에도 올랐다. 다시 한 번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4-1 한일 합작 시스템

한일합작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프로듀스 48이 가지는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전 시즌에서도 중국 출신이나 일본 출신의 연습생들이 일부 있었지만¹²⁾, 이들은 모두 국내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로서 다른 한국 연습생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었다. 반면에 프로듀스48의 경우 이미 일본에서 데뷔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현역 아이돌 가수인 AKB48의 멤버들 48명들과 대부분 방송 경험이 없는 한국 연습생 48명, 총 96명이 경연을 펼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프로듀스 48의 제작에 참여한 아키토 야스시는 일본 AKB48 시스템을 제작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프로듀스 시리즈가 지적 받았던 총선거 시스템에 대한 표절 시비를 한순간에 일축시키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협업에 대해서 이질적인 두 아이돌 문화가 함께 섞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장덕현 문화평론가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아이돌 스타일과 한국 아이돌의 스타일도 상당히 다르고, 막바지에는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예컨대 실력차가 많이 나는데도 실력적 순위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순위가 매겨지면서 불만 토로도 많았다. 이것이 결국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며, 프로듀스 101 시즌3의 존재하였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했다.

4-2 일본인기스타와 한국 연습생들의 대결? : 공정성 논란

"일본 분들은 연예인이시고 저희 한국은 연습생들이잖아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¹¹⁾ 일본 도쿄도 메구로 구 출신의 방송 작가, 작사가, 각본가, 영화 감독, 만화 원작자, 소설가, 공연 연출가 교수, 아이돌 프로듀서.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아이돌 그룹인 AKB48의 프로듀서로 더 유명하다.

¹²⁾ 시즌 1 에 주결경(중국), 아리요시리사(일본), 시즌 2 에 라이관린(대만), 타카다 켄타(일본) 등 몇몇의 외국 참가자가 있었으나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 단순히 외국 국적의 참가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국의 이채연 참가자가 3회차 그룹 배틀 경연 경합 후 순위에 대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이미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한국에서도 탄탄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AKB48의 멤버들이 대부분 방송활동의 경력이 거의 없는 한국 연습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참가자들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방송에서는 일본 참가자들과 한국 참가자들이 똑같이 비춰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방송 출연 경험이나 대중 매체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일본 참가자의 경우 대중들이 유입될 경로가 더 많다는 점에서 한국 참가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한국 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핸디캡 없이 일본 참가자들과 동일선상에서 경합을 펼치게 했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을 야기했다.

이러한 참여자들간의 불공정성 문제는 시즌2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시즌2의 경우 방송 경력이 있는 참가자라 할 지라도 기존의 활동에서 가수로서의 빛이 보지 못했던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프로듀스 48의 경우 AKB48이라는 그룹 자체가 일본에서 이미 매우 많은 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탄탄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절반이 방송경력이 있는 일본인들로 구성되면서, 시청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전파를 타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들에게는 그닥 친숙하지 않은 AKB48의 히트곡을 한국 연습생들이 모두 익숙하다는 듯이 따라 부르는 장면, 다소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고토모에 참가자의 춤사위를 보고 주리나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쟁쟁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댄싱퀸으로 선발되는 장면 등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Exhibit 9]

4-3 계속되는 공정성 논란 : 일본연습생 밀어주기 논란

시즌 2와 마찬가지로 프로듀스 48에서도 특정 참가자들을 내정해두고 밀어준다는 이른바 밀어주기 논란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특히 AKB48의 인기멤버인 미야와키 사쿠라 참가자에 대한 밀어주기 논란이 들끓었는데 미야와키 사쿠라는 등급 평가에서 본인의 활동 곡이었던 AKB48의 "검은천사"를 선택해 공연을 펼쳤다. [Exhibit 10] 경연 자체에서는 큰 실수가 없었지만 보여준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트레이너들의 반응이 논란을 야기했다. 배윤정 트레이너는 "나 한 번만 믿고 A 보내자", "왜 1위 후보인지 알 것 같다"는 과도한 찬사를 보내며 미야와키 사쿠라를 A 등급으로 푸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방송 3회차 "내꺼야" 등급 재평가 후에 최종 A등급 연습생 14명 사이에서 센터로 선발되었고, 전체 연습생들이 다 모인 "내꺼야"의 안무 영상 촬영 중 센터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밀어주기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이에 더해 편집의 서사 자체가 일본 참가자들을 돋보이게 구성 되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 프로듀스 48시즌의 대표곡인 '내꺼야' 평가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일본어 둘 중 하나의 버전을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한국 멤버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선택해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일본 참가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 팬들에게 어필을 하기위해 한국어로 평가받기를 선택한 경우가 몇몇 있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인 멤버들 중 몇 멤버들이 한국어를 선택해

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부각시키며 '부족하지만 노력하려는 모습이 아름다운 일본인 참가자'들이라고 편집점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프로그램이고 한국인에게 어필해야 할 유인이 있는 일본인 참가자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 구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한국인 참가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부당한 편집이라고 비판하였다.

4-4 참가자들의 실력 부족

프로듀스48은 전반적인 참가자들의 실력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프로그램의 초반부 한국 참가자들과 일본 참가자들이 개인 역량을 겨루는 등급 평가 자리에서 일본 참가자들의 실력이 이미 일본에서 데뷔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본어 참가자들이 대부분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한국어 연습생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는 장면 등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으나, 한일간의 아름다운 융합이라는 반응보다는 한국인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반응이 보편적이었다. 특히 프로그램 3,4회차 그룹 배틀 경연 준비 과정에서 몇몇 일본 참가자들이 보인 불성실한 자세와 예의 없는 태도가 시청자들의 분노를 야기한 것이다. 마츠오카 나츠미는 첫 그룹 배틀이라는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팀의 핵심인 센터 멤버를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문자 "'이시연과 아이들'이 될까봐"라는 경솔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팀 배틀에서 이겨야 추가 득표인 베네피트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실력 있는 참가자를 견제하기 위한 이기적인 발언으로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예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치바 에이리, 아사이 나나미, 사토 미나미 연습생의 경우 붐바야 2조 팀에서 그룹 배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참가자들 중 가장 실력이 부족한 F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연습 도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아예 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붐바야 2조 팀 일본 연습생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연습 기간 내내 이어졌고 보다 못한 같은 팀의 강혜원, 한초원 연습생이 일본 연습생들을 어르고 달래서 경연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이 전파를 타고,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실력이 부족함에도 노력하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는 일본 연습생을 향해 '개노답 3형제'라는 별명을 붙이며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프로그램 1회차 등급평가에서 한국 참가자들과 일본 참가자들의 실력차에 대해 '한국 분들은 일본에 와서도 인정받는데, 일본 아이돌은 일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아 버린 것 같아서 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인터뷰하였다. 그러나 한국 참가자들 역시 이전 시리즈들과 비교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력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프로듀스 48의 계약 기간이 2년 6개월로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 1년 6개월이나 더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들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실력부족은 1차 조별 경연 붐바야 공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의 한초원 참가자 외 5인은 등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모든 참가자들이 꺼려하는 어려운 곡인 붐바야로 조별 경연을 하게 되었다. 방송에서는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 연출되었지만 정작 경연 무대는 원곡의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는 난해한 무대였다는 평이 대다수였고, 이를 계기로 네티즌들은 붐바야를 '헬바야'라고 부르며 참가자들의 기대 이하의 실력에 난색을 표했다. [Exhibit 11]

4-5 우익 논란의 가중 : 강력한 집입장벽

방송이 계속되면서 특정 일본인 참가자들의 우익논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프로듀스48의 입덕 요소에 장애가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아키토 야스시가 우익 인사라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더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과거 우익 행보가 프로그램 방영 중에 알려지면서 우익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멤버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일례로 미야와키 사쿠라는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¹³한 것이 목격돼 국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2006년에는 AKB48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태평양 전쟁 전사자들을 기리는 공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AKB48 콘서트에서는 멤버들이 욕일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탱크 모형과 함께 등장해 '우리들은 싸우지 않아'라며 전쟁미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김용범 국장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면 <프로듀스48>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하지만 방송이 진행될수록 AKB48의 과거 행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만한 여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참가자들의 과거 행적이 하나 둘씩 커뮤니티 사이로 퍼지면서 프로듀스 시리즈 사상 유래없는 우익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특히 일본의 시타오 미우 등 우익 옹호 발언을 했던 참가자들의 팬들과 이들을 비난하는 팬들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Exhibit 12] <프로듀스 48>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던 대중들도 거세진 우익 논란과 분쟁으로 인해 프로그램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떠나가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3차 순위발표식에서 우익논란의 중심이 있는 멤버들이 대거 데뷔가능권 순위에 진입¹⁴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멤버들로 구성된 바에야 그냥 데뷔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낫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6 프로듀스 시리즈의 영향력과 아이즈원

결과적으로 <프로듀스48>은 최종회에 자체 최고 시청률 3.1%를 기록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다. 이는 일견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전 시즌이었던 <프로듀스 101 시즌 2>가 방송 5회 만에 3%대를 돌파하고, 최종회 5.2%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Exhibit 통합1]

아이돌 인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직캠' 영상 조회수도 이전 시리즈에 비해 저조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내 <프로듀스 48> 직캠 영상의 경우, 최초 공개된 <내꺼야>를 제외하면 모두 100만 회 남짓한 조회수를 기록한 반면, <프로듀스 101 시즌1>과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직캠 영상은 600만 회에서 700만회에 이르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글 검색량 수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구글 검색량 수치는 특정 지역 및 시간을 기준으로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 대비 검색 관심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 100,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인 검색어의 경우 50을 나타낸다. <프로듀스 101 시즌2>가 동 시간대 검색량 최고

¹³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올라가 있는 곳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선 일본 각료들이 이곳을 참배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¹⁴ 3차 순발식 1위~12위 멤버들은 순위대로 미야와키 사쿠라, 미야자키 미호, 이채연, 강혜원, 이가은, 타케우치 미유, 장원영, 시로마 미루, 야부키 나코, 시타오 미우, 혼다 히토미, 권은비로서 과반수 이상이 일본인 참가자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우익논란인 멤버가 있어 대중들로부터 우려를 받았다.

점 100점을 달성한 것과 달리 <프로듀스 48>은 동시간대 검색량 최고점 74점을 기록하였다.

한편, <프로듀스48>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지난 프로듀스 시리즈에 비해 시청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도의 흥행에 성공한 것은 큰 성과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의 시선이 분산되는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프로그램이 방영된 6월부터 8월까지 경쟁 시간대에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지만 <프로듀스 48>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시청률을 유지하였다. 또한 <믹스나인>, <더유닛>, <아이돌학교> 같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96명이나 되는 참가자들을 선발하여 결국 대중들의 호감도가 높은 멤버들로 구성된 데뷔조를 편성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고 판단도 제기된다.

실제로 <프로듀스48>을 통해 결성된 데뷔 그룹 아이즈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저조했던 것이 무색하게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가득 받고 있다. 아이즈원의 데뷔 앨범 '컬러라이즈(COLOR*IZ)'는 초동 발매부터 신기록을 세웠다. 앨범 발매 당일이었던 10월 29일에만 약 3만 4000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종전 최고 기록인 I.O.I의 데뷔 앨범 판매 기록을 단 하루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이는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수량 중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걸그룹 전체 앨범 초동 순위에서도 9위에 해당한다. 또한 데뷔 앨범이 빌보드 월드 앨범차트 9위에, 타이틀곡 '라비앙로즈(La Vie en Rose)'는 월드 디지털 송 차트 6위에 나란히 진입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타이틀곡 '라비앙로즈(La Vie en Rose)' 뮤직비디오는 공개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400만뷰를 돌파하였다. [Exhibit 통합2]

V.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다음 행보... 시즌4?

프로듀스 101은 앞서 살펴본 세번의 시즌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논란과 구설수에 휩싸여왔다. 하지만 이는 대중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I.O.I, 원너워 아이즈원과 같은 그룹들을 탄생시켰다. I.O.I는 2017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활동이 종료되었고 시즌2의 워너원은과 아이즈원은 데뷔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5-1 시즌1 I.O.I 멤버 근황

I.O.I는 프로듀스101 시즌 1 종영 후 2018년 1월 31일까지 활동을 마감하였다. 활동 종료 후 2년이 넘게 지난 현재, 시즌 1 최종 순위 1위 출신 전소미는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소미는 I.O.I 활동 종료 후 원 소속사인 JYP로 돌아가 믹스나인 여자 부문 1위 출신 신류진과 함께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후배 그룹 격으로 데뷔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8년 9월 23일 JYP와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YG엔터테인먼트 테디가 수장으로 있는 더블랙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김세정, 강미나는 I.O.I 활동 이후 바로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구구단'에서의 걸그룹 활동을 이어갔다. 김세정의 경우 드라마, 예능, 광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구구단의 성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멤버 혜연이 탈퇴하게 되면서 그룹 위기라는 우려

를 받고 있다. 정채연 역시 본인은 다양한 방송에서 활동중이지만 본인이 속한 그룹 다이아(DIA)의 성적은 I.O.I 활동 당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이다.

주결경, 임나영은 현재 플레디스 소속 프린스틴이라는 걸그룹으로 활동했으나 그룹 프린스틴 내부에서는 프로듀스 101 출신 멤버와 그렇지 않은 멤버 사이의 인기 격차가 극심한 결과 팀내 융합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멤버 카일라가 2017년 10월경 돌연 미국으로 떠나 프린스틴의 단체 그룹 활동은 현재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프로듀스 101 출신의 멤버로만 구성된 유닛 그룹 프린스틴v로 최근 활동을 진행하였다. 최유정, 김도연은 둘 다 판타지오 그룹 소속으로 2017년 8월 8일 '위키미키(Weki Meki)'라는 팀 명으로 첫 번째 싱글 앨범 'KISS, KICKS(키스, 킱스)'를 통해 8인조로 정식 데뷔하나 I.O.I 이후 정식 그룹 출범이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우려를 입증하듯 저조한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데뷔 이후 김도연은 웹예능 '위키미키 모해?'에서

"아직까지 위키미키가 이렇다 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중략) 주변의 말들 때문에 조금해지기도 하지만 멤버들 덕분에 버틴다. 멤버들을 보면 잘 될 것 같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라고 밝히며 위키미키로서의 활동의 어려움을 전했다. 반면 솔로로 데뷔한 4위 출신 김청하의 경우 프로듀스 101 방송 당시 대형 소속사에 속하지도 않았고 다른 멤버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팬덤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솔로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앨범 'Hands On Me'에 이어 싱글 곡 롤러코스터를 연타로 성공시키며 여성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5-2 시즌2 워너원의 근황 및 추후 행보

2018년 12월 31일 활동 종료 예정인 시즌2 출신의 워너원은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워너원의 센터 강다니엘은 활동이 종료된 후 돌아가게 되는 소속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라는 점에서 그의 활동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웅성우는 이미 드라마 '열여덟(가제)' 출연 계약이 보도되었으며 브랜뉴 뮤직 소속의 이대휘와 박우진은 브랜뉴 뮤직 자체 콘서트에 소속 아티스트로서 참석할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함께 프로듀스 101에 참여하였던 MXM 멤버들과 함께 활동할지 여부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워너원의 활동 연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오가고 있음을 전했다. 실제로 워너원 소속사 스윙 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CJ ENM을 비롯한 각 워너원 멤버들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만나 활동 연장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으나 명확히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3 시즌3 아이즈원의 현재 활동

시즌3가 배출한 아이돌 걸그룹 아이즈원은 데뷔 후 10월 29일 미니 1집 COLOR*IZ발매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성공적으로 데뷔한 아이즈원은 우익 논란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BS2 TV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tvN 코미디빅리그, 주간아이돌,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여러 국내 예능 이외에도 12월 12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2018 Mnet Asian Music Awards in JAPAN에도 참여하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5-4 Mnet의 프로듀스 시즌4는?

다수의 방송관계자들에 따르면 Mnet 프로듀스101의 네번째 시즌이 내년 4월 첫 방송을 목표로 기획 중에 있다. 이에 11월 8일 Mnet 관계자는 프로듀스101의 새로운 시즌을 제작하는 것은 논의중이지만 제작진, 편성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듀스101 시즌2 제작 준비 과정에서 안준영PD는 남자 아이돌 연습생 참가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고, 이에 나중에 남자 버전을 다시 만든다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앞선 프로듀스 101 시즌3가 이전 시즌에 비해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이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했다는 평가 또한 일고있다. 그러면서도 워너원 활동 종료 후 비게 되는 팬덤 인원이 이후의 프로듀스 시즌 4로 몰릴 수 있는 기회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즌4에서는 어떠한 제작진이 어떠한 포맷과 룰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지,또한 이번 시즌에서 또 하나의 대박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게 될지, 프로듀스 101 시즌 4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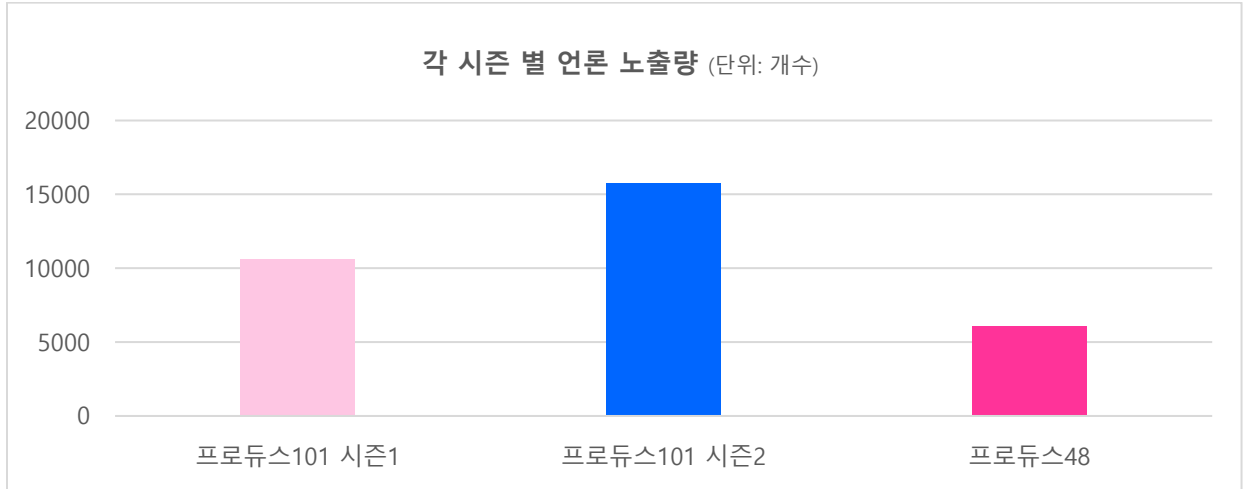
<토론 질문>

- 1) 오디션 프로 하향세 시점에서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 2) 프로듀스 48 시리즈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보고 성공과 실패 원인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 3) 새로운 프로듀스 시리즈를 기획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 PD 와 방송사의 입장에서 토론해보자
- 4) 첫 번째 프로그램의 한 차례의 성공 뒤 추후 시리즈가 성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Appendix

[Exhibit 통합 1] 시즌 1,2,3 프로그램의 성적 (언론노출량, 평균시청률, 음원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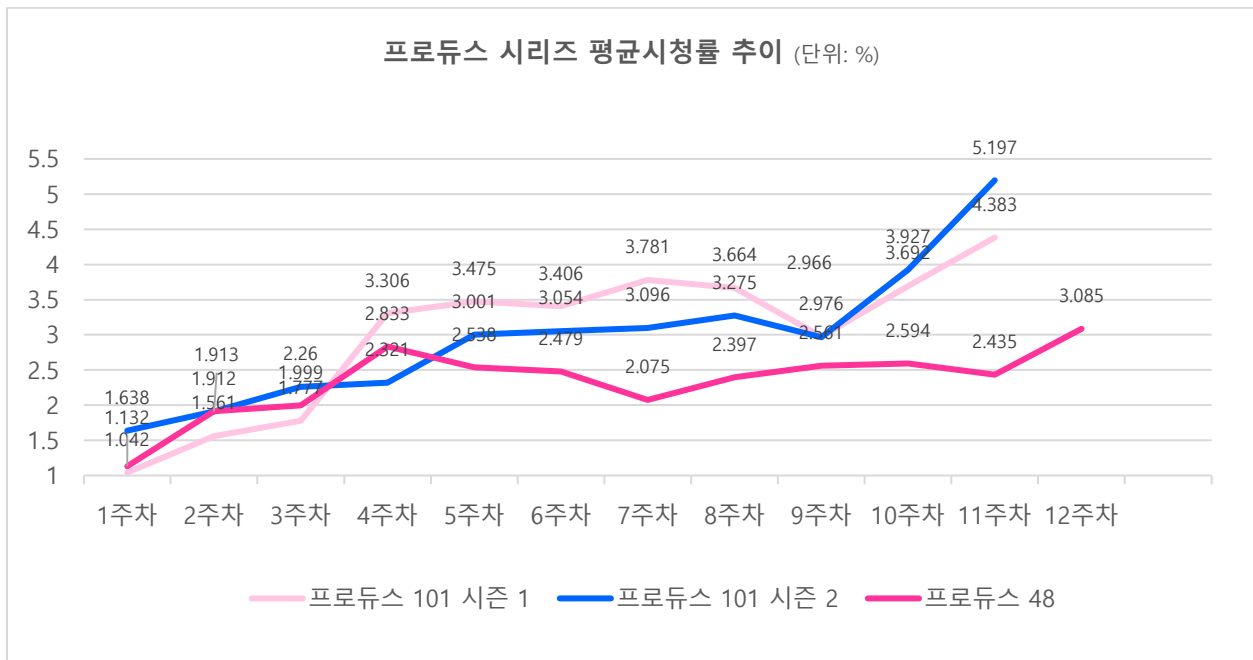
통합 1-1) 프로듀스 시즌별 언론 노출량



(자료제공 : 가온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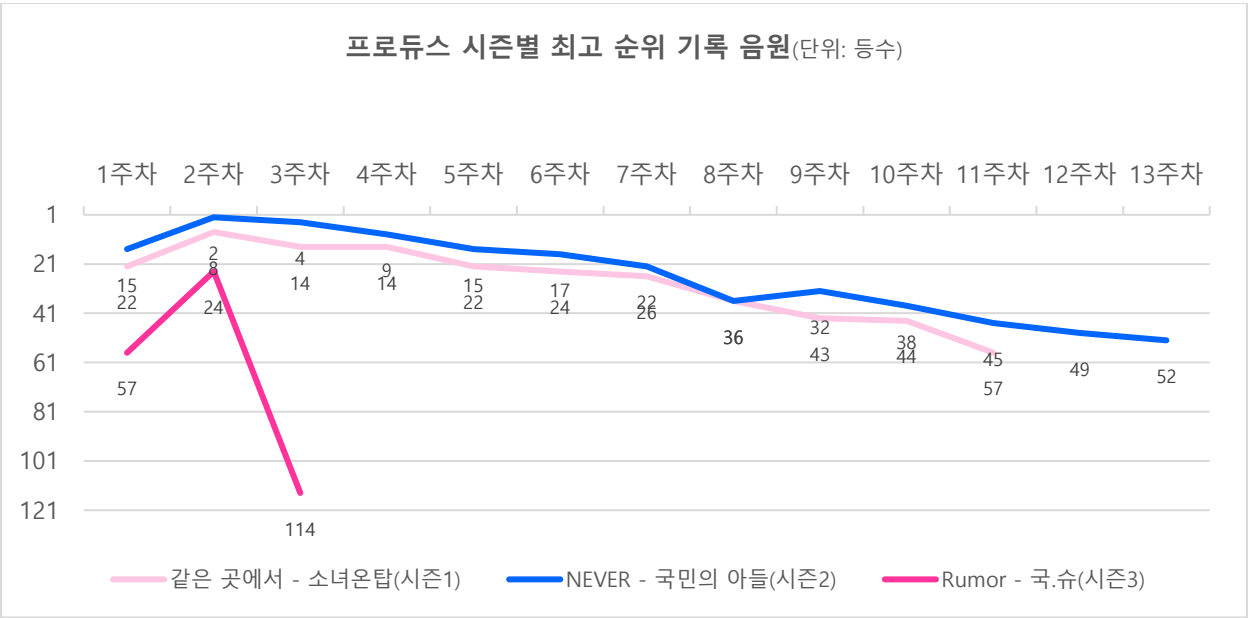
설명) 각 시즌 별 언론 노출량은 해당 시즌의 인지도와 화제성을 대표할 만한 지표로 프로듀스 101 시즌 1은 방영기간 중 총 10,567 개, 시즌 2는 15,768 개, 프로듀스 48은 6,054 개의 언론 기사량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통합1-2) 프로듀스 시즌별 평균시청률



(자료제공: 닐슨코리아, 굿데이터코퍼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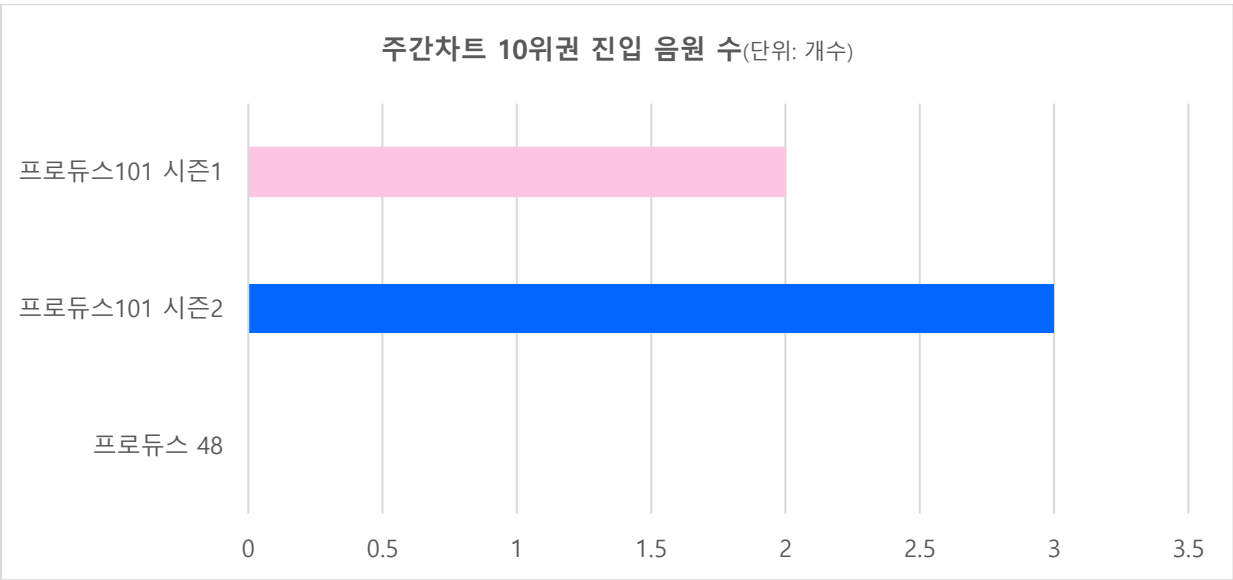
통합 1-3) 프로듀스 시즌별 최고 순위 기록 음원 성적



(자료제공: 가온 차트 - 주간차트부문)

설명 : 각 시즌별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음원을 살펴보면, 시즌 1에서는 소녀온탑 '같은 곳'에서가 8위, 시즌 2에서는 국민의 아들 'NEVER'가 2위, 프로듀스 48에서는 국.슈(국프의 핫이슈) Rumor가 24위의 주간차트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50 위권 음원 수명은 국민의 아들 'NEVER'가 12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통합 1-4) 프로듀스 시즌별 주간차트 10위권 진입 음원 수



(자료제공: 가온 차트)

설명) 프로듀스101 시즌 1은 가온 주간 차트 기준 2곡(PICK ME, 같은 곳에서), 프로듀스101 시즌 2는 3곡(열어줘, Oh Little Gire, NEVER), 프로듀스 48은 0곡을 10위권 안에 랭크시킨 것으로 나타남

[Exhibit 통합 2] 프로듀스 시즌 그룹 성적

그룹별 활동 성적(한터 차트 기준)			
IOI			
발매일	타이틀곡	진입 순위	음반 초동 판매량
2016.05.04.	Dream Girls	6 위	28,400
2016.08.09.	Whatta Man	2 위	41,700
2016.10.17.	너무너무너무	1 위	50,400
2017.01.18.	소나기	1 위	-
Wanna One			
날짜	타이틀곡	진입 순위	음반 초동 판매량
2017.08.07.	Energetic	1 위	411,300
2017.11.13.	Beautiful	1 위	417,900
2018.03.19.	BOOMERANG	1 위	389,000
2018.06.04.	켜 줘	1 위	354,900
2018.11.19.	봄바람	1 위	438,300
IZ*ONE			
날짜	타이틀곡	진입 순위	음반 초동 판매량
2018.10.29.	La Vie en Rose	9 위	80,800

(자료제공: 한터 차트)

설명1)앨범 초동 - 한일 공통으로 아이돌의 음반 판매량에 대하여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은어로 이 단어를 사용함. 이 때의 초동의 뜻은 앨범 발매 후 1주일의 기간을 의미.

설명2) 타이틀곡 중 '소나기'에 해당하는 음반 초동 판매량의 경우, 디지털 싱글이어서 수치가 빠져 있음.

[Exhibit 통합 3] 프로듀스 시즌 1,2,3 최종 선발 멤버 별 평균 순위 변동률 집계

(각 시즌 이전 투표 주자 대비) (단위: %)

시즌 회차	시즌 1	시즌 2	시즌 3
1 회	X	X	X
2 회	25.75	31.73	73.06
3 회	19.12	28.37	23.30
5 회	46.86	46.50	21.74
6 회(8 회)	37.22	84.46	58.56
8 회(9 회)	4.35	52.26	138.16
10 회(11 회)	105.62	149.82	29.22
최종회	23.04	62.52	81.30
평균	37.42	65.09	60.76

설명 1) 시즌 1의 2 회차에 해당하는 수치 2.78은 시즌 1의 최종 선발된 각 멤버의 투표 1,2 회차간의 변동률의 평균을 의미

설명 2) 시즌 3는 시즌 1,2와 투표를 진행한 방송 회차가 다름에 차이가 나는 회차를 괄호 안에 따로 표시

[Exhibit 1] 슈퍼스타K 시리즈 이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난립

방송사	프로그램	년도	비고
Mnet	슈퍼스타 K	2009	가수 선발 서바이벌 오디션
	슈퍼스타 K2	2010	
	슈퍼스타 K3	2011	
	슈퍼스타 K4	2012	
	슈퍼스타 K5	2013	
	슈퍼스타 K6	2014	
	슈퍼스타 K7	2015	
	슈퍼스타 K 2016	2015	
	보이스 코리아	2012	보컬 서바이벌
	보이스 코리아 2	2013	
	보이스 키즈	2013	어린이 보컬 서바이벌
	쇼 미 더 머니	2012	힙합 서바이벌
	쇼 미 더 머니 2	2013	
	쇼 미 더 머니 3	2014	
	쇼 미 더 머니 4	2015	
	쇼 미 더 머니 5	2016	
	쇼 미 더 머니 6	2017	
	쇼 미 더 머니 777	2018	
	언프리티 랩스타	2015	
	언프리티 랩스타 2	2015	
	언프리티 랩스타 3	2016	
tvN	고등래퍼	2017	고등학생 랩 서바이벌
	고등래퍼 2	2018	
	댄싱 9	2013	댄스 서바이벌
	댄싱 9 시즌 2	2014	
	댄싱 9 시즌 3	2015	
	소년 24	2016	보이그룹 선발 서바이벌
	아이돌학교	2017	걸그룹 서바이벌
	코리아 갓 탤런트	2011	재능 오디션
	코리아 갓 탤런트 2	2012	

[Exhibit 2] 안준영 PD 연출 경력

프로그램(연도)	최고 시청률	비고
슈퍼스타 K2(2010)	18.1%	허각, 존박, 장재인, 강승윤, 장문복
슈퍼스타 K3(2011)	14.0%	울랄라세션, 버스커 버스커, 김예림
슈퍼스타 K4(2012)	10.6%	로이 김, 정준영, 딕펄스, 유승우, 에디 김
댄싱 9(2013)	2.5%	박지은, 이선태, 하휘동
댄싱 9 시즌 2(2014)	3.3%	김설진
프로듀스 101(2016)	4.4%	I.O.I
프로듀스 101 시즌 2(2017)	6.4%	Wanna One
프로듀스 48(2018)	3.4%	IZ*ONE

[Exhibit 3] 프로듀스 101 시즌 1의 방송중에 부각된 김세정과 김소혜의 선생과 제자 관계성(시즌1)



[Exhibit 4] 프로듀스 101 시즌 1의 서브컨텐츠 방송 장면



[Exhibit 5] 프로듀스 101 시즌 2 참가자 중 방송 경력이 있는 참가자들 목록

이름	활동	이름	활동	이름	활동
강동호	뉴이스트	손동명	Mas 0094	정효준	배우
김사무엘	펀치	왕민혁	NPI	조규민	알파벳
김상균	탐독	유경목	비오엠	조진형	솔로
김중현	뉴이스트	이서규	순정소년	주원탁	언더독
김동현	엑스텐	이유진	배우	최민기	뉴이스트
김재한	원보이스	이인수	A69	최준영	아포스
김찬울	JJCC	장문복	솔로	최하돈	JJCC
김태우	리온파이브	정동수	오프로드	한민호	순정소년
노태현	햇샷	정시현	배우	하성운	햇샷
박희석	엑스텐	정원철	A6p	황민현	뉴이스트

설명) 단순 오디션 프로그램 등의 일회적인 참여는 제외

[Exhibit 6] 프로듀스 101 시즌 2 참여자 논란 정리 목록

1. 강다니엘	SNS 이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팀별 미션 곡을 암시하는 듯한 이모티콘을 올려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임, 방송을 통해 잘못을 지적 받는 장면이 방송을 탔으며, 패널티를 받음
2. 강동호	정세운과의 의견대립 중 보여준 일부 언행이 거칠며 폭력적이라는 논란
3. 권현빈	그룹평가 준비중 실력이 부족함에도 열심히 하지 않는 듯한 장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내 현장평가 최고 득표를 하는 장면이 함께 방송에 나가면서 논란이 불거짐
4. 윤지성	팀 미션 중 잘 따라오지 못하는 같은 팀원에게 '자선단체가 아니다'등의 발언을 하며 논란에 휩싸임, 또한 같은 소속사 강다니엘과 함께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임
5. 이대휘	방송 초반에 있었던 팀 곡 선정 과정에서 늦게까지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안뽑힌데는 이유가 있다' 등의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인성 논란이 됨
6. 임영민	과거 여자친구와의 연애 행적이 드러나면서 여자친구가 있는 참가자는 아이돌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어 지인들이 공개금지였던 임영민의 순위를 스포일러한게 실제 들어맞으며, 임영민이 방송순위 스포일러 금지 조항을 깬다는 비판도 받음

7. 주학년	부족한 실력임에도 과도한 센터욕심이 방송을 통해 비춰졌으며, 팀의 리더 홍은기와 마찰을 빚어 인성 논란이 됨
8. 하민호	하민호가 인스타그램 메시지인 DM 을 이용해 팬과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짐, 이후 프로그램에서 하차함
9. 한중연	방송 초반 과거 학교폭력행적이 밝혀지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함
10. 황민현	과거 뉴이스트 활동 시절에 라디오에서 자전거를 흠 친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프로듀스 101 시즌 2 방영 중 논란이 됨.

[Exhibit 7] 프로듀스 시즌 2의 팬덤 문화

	
라이관린 참가자 지하철 광고	김사무엘 참가자 랩핑버스

[Exhibit 8] 프로듀스 시즌 2 서브 콘텐츠 방송 장면

	
히든영상(네이버캐스트 tv)	히든박스 미션(네이버캐스트 tv)

[Exhibit 9] 프로듀스 48 방송 중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방송 장면

 프로듀스 48 2회차 등급평가 중 한국 대중들에게 생소한 AKB48의 히트곡을 한국 연습생들이 모두 익숙하다는 듯 따라 부르는 장면.	
 프로듀스48 5회 댄싱퀸 선발전에서의 고토 모에 참가자의 우스꽝스러운 춤사위	 프로듀스48 5회차 고토 모에의 춤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마츠이 유리나

[Exhibit 10] 프로듀스 48 미야와키 사쿠라 밀어주기 논란

	
프로듀스48 2화의 등급 평가 자리에서 미야와키 사쿠라 참가자가 보여준 실력에 비해 높은 A등급을 받아 논란이 됐던 장면	

[Exhibit 11] 프로듀스 48 중 실력논란으로 화제를 모았던 불바야 공연 장면



[Exhibit 12] 프로듀스 48 방송 당시 논란이 되었던 AKB48의 과거 우익 활동



<참고자료>

- 김윤하, '국민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2017.06)
- KOCCA<방송 트렌드 & 인사이트> http://www.kocca.kr/insight/2017vol10/201706_vol10_2_3.pdf
- 김디모데, "오디션 장인' 안준영, '프로듀스 시리즈' CJENM 대표 콘텐츠 굳혔다'(2018.08.31)
- 비즈니스포스트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94487
- 엔터미디어(정덕현), '더 유닛'과 '믹스나인', 아이돌 오디션 유통기한은 끝났다 (2018.02.11)
- http://m.entermedia.co.kr/news_view.html?idx=7655
- http://gaonchart.co.kr/main/section/article/view.gaon?idx=5933&sgenre=opinion&search_str=